

한화석유화학, 재무구조 개선 뚜렷

2004년 매출액 1조6400억원 기대 ... PVC 수직계열화로 마진 “톡톡”

한화석유화학이 2004년 흑자전환 후 3년째를 맞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재무 및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.

한화석유화학은 2003년 매출 1조5531억원, 영업이익 1263억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2004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6400억원, 18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다.

2003년 4/4분기 영업이익은 3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7% 증가하는 대폭적인 실적호전을 기록했으나 경상이익은 38억원의 적자를 보였는데, 한화종합화학 등 일부 계열기업의 실적부진에 따라 지분법평가이익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.

한화석유화학은 PVC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생산라인을 최신시설로 교체하고 생산량을 10% 이상 늘리는 등 경쟁력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부터 3년 동안 총 3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.

또 자사 및 계열기업의 영업활동 호조로 현금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해 1000억원 수준의 차입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01년 1조3700억원(부채비율 181.2%)에 달했던 순차입금이 2005년 1조38억원(부채비율 100.6%)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증권가에서는 한화석유화학이 영업환경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있어 목표주가의 상승여력이 42.5%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. 에틸렌 대비 나프타 가격 상승률이 낮으며 주력제품인 PVC가 석유화학 경기상승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.

한화석유화학의 경영실적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03 1/4분기	2003 2/4분기	2003 3/4분기	2003 4/4분기	2002	2003	증감률
매출액	3,881	3,606	3,789	4,165	15,669	15,531	▽0.9
영업이익	239	367	260	397	1,245	1,263	1.4
경상이익	876	853	603	-38	876	2,293	162
순이익	599	586	415	-39	308	1,560	406

현대증권은 한화석유화학의 4/4분기 영업이익 호조에 대해 2003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PVC 가격강세에 따라 내수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. 2003년 4/4분기부터 PVC 내수가격을 소폭 인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영업실적 호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2004년 들어서도 1995년 이후 처음으로 PVC 국제가격이 톤당 900달러를 돌파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.

동양증권은 미국-이라크 전쟁, SARS 등으로 인한 원가압박 및 수요침체로 지연됐던 석유화학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되며 아울러 과거 저수익 품목이었던 LLDPE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제품가격 상승 및 마진개선이 지속되면서 영업 측면 외에 재무 및 지배구조 역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내다보았다.

신흥증권도 한화석유화학이 완벽한 PVC 수직계열화(Etyelene-EDC-VCM-PVC)를 이루어 원재료를 외부 구매에 의존하는 다른 석유화학기업들에 비해 이익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예상돼 2004년 1/4분기 실적도 2003년 4/4분기에 이어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한편, 한화석유화학은 2003년 9월 3/4분기 공시 이후로 2003년 매출액이 1조1353억원에서 1조5531억원으로 3개월만에 36.8% 증가했으며, 2004년에도 매출액이 1조6400억원으로 전년대비 5.59%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22>